

## 특집 | 현대 일본사회와 종교

### 1980년대 소비사회와 소녀 물신주의(fetishism):

#### 창작 주술 붐과 전생소녀 현상을 중심으로 | 김효진

투고일자: 2017. 12. 29 | 심사완료일자: 2018. 1. 6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이 글은 그레이버(D. Graeber)의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1980년대 일본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실천, 즉 물신주의를 1) 이 당시 도래한 소비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2) '번역자'로서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의 『소녀민속학』과 1980년대 소녀문화에 대한 일련의 비평을 분석함으로써 기성세대의 시선이 소녀들의 하위문화와 만났을 때 어떤 '번역'이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다.

뉴카카데미즘, 뉴에이지, 뉴사이언스의 득세와 신신종교의 성장이라는 1980년대 일본 종교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소녀들의 물신주의가 호명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글은 그 당시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실천과 전생소녀 현상을 잡지 및 소녀만화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핀다.

그레이버의 물신주의 개념에 바탕하여, 소박한 창작 주술과 사랑점, 그리고 전생소녀 현상으로 대표되는 소녀들의 물신주의는 이를 뒷받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집단 내부에서 널리 공유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성이 소비를 통해 표현되고 연애조차 매뉴얼화되었던 1980년대 일본사회 전반의 모습과 사실상 동형적이었다.

나아가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소녀들의 하위문화와 소박한 물신주의에서 1980년대 일본 소비사회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던 '번역자' 오쓰카를 통해 소녀들의 물신주의는 기존의 소녀문화론 및 주류사회에 접속되었고, 이후 90년대 일본 남성들의 소녀에 대한 집착적인 물신주의로 전유되는 '비연속의 연속'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물신주의, 창작 주술, 오쓰카 에이지, 소녀문화, 소비사회, 전생소녀, 번역

## 현대 일본사회의 요괴 붐 | 박전열

투고일자: 2018. 1. 5 | 심사완료일자: 2018. 1. 11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일본에서 요괴를 논할 때, 대개 요괴론의 발전 과정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상으로서의 요괴, 이야기 속의 존재로서의 요괴, 조형화 시각화된 요괴 등이다. 요괴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나 현상 또는 공포감이나 신비감 등을 명명한 것이다.

요괴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실체처럼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요괴나 괴이한 현상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는 동안 여러 요괴는 독립적인 형상과 성격을 지니며 개성적인 그림이나 이야기도 창작된다. 이 경우 처음에는 일정한 지역의 특성을 배경으로 개성을 지닌 요괴로서 이야기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감대가 확장되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요괴로 광역화하기도 한다.

요괴는 이야기의 세계라는 추상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제사나 의례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위

용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로 재현되기도 한다. 나아가 그림이나 연극의 등장인물로 대상화되어 묘사되기도 하고 완구나 장식품으로 상품화되기도 한다. 이때 요괴는 강한 개성을 띠우며 변별력 있는 명칭과 모습으로 정착되어 이미지가 고정되기에 이른다.

오늘날 일본의 요괴는 대부분 이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시각성이 강한 인체물이나 조형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고정된 이미지가 정착되면, 다음 단계에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유지하되 다양한 변용을 만들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오니(鬼), 덴구(天狗), 갓과, 다누키(狸) 등의 요괴는 오늘날 수많은 캐릭터를 파생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요괴는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창작된다.

요괴는 일본의 현대사회의 문화적 수요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붐을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의 요괴는 문화 생산의 중요한 제재(題材)로 기능하며 즐거움의 대상, 힐링의 소재로 응용된다. 또한 요괴는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를 구축하며,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에 이른다.

주제어: 요괴, 제주채약기, 요괴 데이터베이스, 요괴워치, 외재화

### 순례와 일본인: 구마노고도(熊野古道)를 중심으로 | 박규태

투고일자: 2017. 11. 13 | 심사완료일자: 2017. 12. 1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1990년대 이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순례 붐이 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 시코쿠헨로(四国遍路)라 불리는 구카이(空海) 관련 88개소 관음영장(觀音靈場) 순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 시코쿠헨로 외에도 사이고쿠(西国) 33개소 관음영장순례라든가 칠복신(七福神) 순례 등 역사적으로 성지순례문화가 매우 잘 발달된 나라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일본의 순례문화 가운데 특히 구마노혼구대사(熊野本宮大社), 구마노하야타마대사(熊野速玉大社), 구마노나치대사(熊野那智大社) 등 이른바 구마노삼산(熊野三山) 및 청안도사(靑岸渡寺)와 보타락산사(補陀洛山寺)를 중심으로 하는 구마노고도(熊野古道) 순례의 역사와 특징 및 그 종교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구체적으로 구마노와 수험도(修驗道) 간의 밀접한 연관성, 보타락도해(補陀落渡海), 유노미네(湯の峰) 온천과 오구리한관(小栗判官) 설화, 잇펜(一遍)과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의 에피소드, 하나노이와야(花の窟)와 이자나미신화, 삼족오(三足烏) 상징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경계와 정화 또는 죽음과 재생이라는 종교적 모티브가 구마노고도 순례의 본래적 모습이며, 그것이 2004년 7월 ‘기이산지의 영장과 참배로(紀伊山地の靈場と參詣道)’라는 타이틀로 세계유산에 등록된 이래 오늘날 스피리추얼리티 붐 혹은 파워스팟 붐의 옷을 입고 새롭게 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성지, 순례, 구마노고도, 구마노삼산, 정화, 죽음과 재생

### 파워스팟 체험의 현상학: 현세이익에서 심리이익으로 | 호리에 노리치카

투고일자: 2017. 12. 4 | 심사완료일자: 2017. 12. 12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일본에서 ‘파워스팟’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한 파워, 에너지, 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가리킨다. 이 말은 1980년대 중반에 등장했고 2000년대에는 파워스팟이 신사에 많이 존재한다고 믿어지게 된다. 2009년에 붐이 일고부터는 현세이익에 관한 선전이 나오게 된다. 선행 연구는 매스컴의 정보 분석을 통해 신기신앙에서의 일탈을 지적해왔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블로그 기사의 파워스팟 방문 후기를 자료로 그 체험 내용을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초심리적 효과, 현세이익이라는 요소로 분석했다. 탐방자는 물, 빛, 소리, 온도, 바람 등의 감각을 통해 진정작용, 각성작용, 신비한 느낌, 장소에 초대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그것을 전자파나 에너지의 메타파와 관련

지어 '과워'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명상적 상태에서 그것들로 초감각적 인식을 구성하며 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탐방자는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듯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대처법을 개선하는 '심리이익'을 얻고 있다. 끝으로 오미와신사를 예로 들어 동일 장소에 신기신앙·현세이익·자연승배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파워스팟 체험은 신기신앙에서의 일탈일지도 모르나 현세이익의 추구와는 달리 탐방자는 자연승배의 실천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파워스팟, 스피리추얼리티, 치유, 신도, 관광연구

### 정치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서의 자연장(自然葬): '시스템'을 넘어 | 김셋별

투고일자: 2017. 12. 11 | 심사완료일자: 2017. 12. 21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 무렵에 '선조 대대로의 묘' 형식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혈연, 지연과 상관 없이 같은 묘석이나 초목 아래 유골을 매장하는 합장묘, 개인이나 핵가족 단위로 초목 아래 유골을 매장하는 수목장, 바다나 산 등에 산골(散骨)하는 장법 등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 장례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선조관의 양상에 대해, 선행 연구는 전후 가족제도의 변화에 발맞추는 형태로 선조관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 근대의 선조관 및 선조 대대로의 묘의 성립에 있어서 메이지 정부의 개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메이지 정부의 통치 이념을 반영하며 형성된 선조관과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작용/반작용의 실천의 축적이, 1990년 이후의 장례문화의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은 자연장을 중심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장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주제어: 자연장, 산골, 장례, 선조관, 시민

### 현대 일본사회의 적군 전사자 추도와 내셔널리즘:

#### 흥아관음(興亞觀音)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세연

투고일자: 2017. 11. 19 | 심사완료일자: 2017. 12. 1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최근 현대 일본사회를 종교 내셔널리즘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시각이 신종교 단체를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일본회의'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동향을 염두에 두고 흥아관음을 소재로 삼아 종교 내셔널리즘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1940년 마쓰이 이와네가 세운 흥아관음은 근대 이후 일본의 전통으로 규정되고 있던 적군 전사자 추도를 표방한 불상이었다. 1945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흥아관음은 네오내셔널리즘 발흥의 시기에 재발견되었다. 1994년에 결성된 '흥아관음을 지키는 모임'은 흥아관음의 유지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키는 모임'을 둘러싼 면면을 살펴보면, 이 모임이 우익 네트워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키는 모임'의 주요 인물과 오늘날 '일본회의'의 주요 인물은 적지 않게 겹친다. '지키는 모임'의 사람들은 대체로 마쓰이가 표방했던 대아시아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그것이 곧 적군 전사자 추도라는 일본의 '위대한 전통'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흥아관음을 앞세워 야스쿠니 신사에서도 적군 전사자를 추도했다. 그것은 산 자가 조명되고 죽은 자가 후경화하는 적군 전사자 추도의 메커니즘, 제국의 소멸에 따른 내셔널리즘 담론 공간의 축소, 네오내셔널리즘의 발흥이라는 맥락이 맞물리면서 실현 가능했다. 현대 일본사회의 적군 전사자 추도가 내셔널리즘 너머 트랜스내셔널한 연

대의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전평화운동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평화관음상 운동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지만, 내셔널리즘의 혐의는 없는지 좀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때다.

주제어: 흥안관음, 원친평등, 내셔널리즘, 평화

---

## 연구논단

###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군국의 어머니:

#### 『조선공론』 지면을 통해 본 재조(在朝)일본인 사회의 젠더 담론 | 권숙인

투고일자: 2017. 11. 13 | 심사완료일자: 2017. 12. 8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이 글에서는 『조선공론』 기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형성되었던 일본인 사회의 젠더 담론을 분석했다. 특히 일본인 커뮤니티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던 이주 초기단계부터 전시 상황이 심화되는 1930년대 후반 이후까지의 담론적 흐름을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당대 일본인 사회의 상황과 연결시켜보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10년대 식민사회가 형성되던 초기의 지배적 논조는 여성의 성적 방종에 대한 강한 경계와 제국의 기획에 헌신하는 남성을 내조하는 좋은 아내(“良妻”)의 역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이 시기는 식민자 사회의 규모가 급팽창하면서 여성에 대한 통제와 규율이 식민통치의 안정화 과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사회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 1920년대에는 여성 관련 쟁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심했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참정권과 같이 여성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룰 경우에도 주로 본국에서 전개되는 논쟁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머물러, 어느 쪽이든 자체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없다. 1930년대 들어 만주사변 이후가 되면 “시국”에 부응하는 여성의 기여,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편, 합리적인 가사와 생활개선을 위한 교화 노력도 시도되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적 여성”의 도덕에 대한 강조와 함께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각성을 직접 촉구하는 글들도 등장하면서 일본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위한 모성의 동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주제어: 재조일본인, 재조일본인 사회의 젠더 담론, 『조선공론』, 식민지 여자, 제국의 주부, 군국의 어머니

### 넷우익을 통해 본 일본 우경화의 정치 동학 | 하중문

투고일자: 2017. 11. 20 | 심사완료일자: 2017. 12. 7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21세기 일본에서는 역사 갈등을 배경으로 혐한(嫌韓)의 풍조가 강해졌고 넷우익이 태동했다. 이 글은 넷우익의 정치 세력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반미를 둘러싼 넷우익과 보수 정치권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의 진척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와 관련 사이트의 댓글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넷우익은 전반적인 일본의 우경화 무드에 힘입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까지 도모했으나, 반미·친미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첨예한 사안을 놓고서는 보수 정치권, 특히 아베 신조 정권과의 갈등도 불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점에서 넷우익은 개인성, 유희성, 무정형성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집단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넷우익, 우경화, 재특회, 일본군 ‘위안부’, 반미